

사회적 혐오, 혐오 발언과 기독교 윤리적 제언*

- 언어의 수행성

조안나 (서울신학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혐오: 감정인가? 행위인가?
- III. 혐오의 인식적 메커니즘과 행위: 사회를 유지하는 혐오
- IV. 사회적 혐오투사: 혐오 언어의 기제와 언어의 수행성
- V. 혐오 발언의 기독교 윤리적 제언: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로서 효과수
반발화행위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4.11>

*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임 (NRF-2022S1A5B5A16049882).

• ABSTRACT •

Social Hate, Hate Speech and Christian Ethical Suggestions:
The Performance of Language

Research Professor, Cho, Anna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plore social hate and hate speech through the performance of language, and to find Christian ethical suggestions and methods. Social hatred is realized through hate speech, which is the execution and result of the performance of language. Thus, the expression and remarks of hate are used to reflect the ideology, mechanism, customs and culture of society within the language-social structure, and to discriminate, exclude, and exterminate specific hate targets.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hate and hate speech in the dimension of Christian ethics through the performance of language, speech act. In addition, it examines the re-establishment of the hate group's awareness through the verbal actions of the case of Jesus' violating the purity laws. Finally, we explore the re-significance of the title, a method of countering hate language, using the performance of language.

Key words: Social Hate, Hate Speech, Performance of Language, Christian Ethics, Speech Act Theory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혐오는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 어느 사회에나 늘 있었던 것이었지만 한국사회에서 혐오라는 말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화장실에서 일어난 여성 살인 사건 때부터이다. 참으로 참담했던 사건, 살인의 동기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행해졌던 끔찍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전 국민의 ‘슬픔과 애도’의 공감대를 일으키지 못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살해 당해야 했던 한 여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살해의 원인이 여성 혐오에 있다고 보고, 이에 여성 혐오 저항 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은 특정 남성들에 의하여 남성 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순식간에 혐오 논쟁이 되었다.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을 추모합니다’, ‘남자라서 죽은 천안함 용사들을 잊지 맙시다’의 상 반대되는 추모의 행렬이 한 여성의 죽음 앞에서, 살인의 현장 앞에서, 망자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예식이 아닌 혐오 싸움이 되었다.

우리는 2014년 7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흑인 에릭 가너(Eric Garner)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날 가너는 길거리에서 싸움하던 흑인 사람들을 말리고 있었고 이 일로 백인 경찰의 심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분명히 말했다. 그랬더니 경찰은 가너가 불법으로 낚담배를 팔았다고 심문했다. 가너는 낚담배를 팔거나 숨길 그 어떤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너는 실제로 무고했고 주변 사람들 역시 가너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가너는 경찰에게 아무런 위협의 행동도 하지 않았으나 한 경찰은 가너에게 갑자기 수갑을 채우려 했다. 가너는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어 수동적인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런 가너를 다른 경찰이 뒤에서 그것도 뉴욕에서 불법인 초크(chokehold)를 걸어 가너의 목을 졸랐다. 가너 한명

에 5·6명의 경찰이 모여 그를 제압했고 가너는 그 순간에도 경찰들을 공격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단지 천식을 앓고 있던 그는 숨을 쉴 수 없다고 11번을 말했다 뿐이었다. 그는 의식을 잃었으나 그 즉시 아무도 수갑을 풀어줄 생각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구급차를 바로 부르지도 않았다. 그렇게 가너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세상을 떠났다.

에릭 가너의 죽음이 이슈화된 것은 가너가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찰이 가너에게 행한 행동과 무고한 흑인 시민을 죽이고도 재판부가 경찰에게 불기소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 사회가 얼마나 흑인 혐오와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고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행동은 이해 불가능한 행동이었고, 더욱이 무고한 시민을 그것도 대낮 뉴욕 한복판에서 죽인 살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백인 경찰들은 아무도 숨을 쉴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에릭 가너를 도와주지 않았을뿐더러 놀라거나 당황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냉소를 지을 뿐이었다. 맥박이 희미해지는 것을 알았을 때도 특별히 응급처치하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정부와 경찰국은 해당 경찰들에게 살인죄를 묻지 않았다. 검사관은 에릭 가너의 죽음을 목졸림과 흉부압박, 경부압박으로 진단하고 살인으로 판결했으나 경찰국은 경찰의 편을 들어주었다. ‘Blacklivesmatter’의 저항 운동이 거세어지자 초크를 걸었던 경찰만 파면시킬 뿐이었다. 에릭 가너가 목숨을 잃고 5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야 말이다.

2019년 당시 뉴욕 경찰국장이었던 제임스 오닐은 “가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작은 몸싸움으로도 숨졌을 것이며 그러나 가족들이 가너씨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가너에게 초크를 걸었던 대니얼 판텔레오의 파면을 선고했다. 그 뒤 그는 “오늘은 심판의 날이자 화해의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경찰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

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발언에는 분명 비속어가 없었지만, 언어가 지닌 의미는 혐오적이다. 경찰을 대신하여 사죄하거나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가너의 죽음을 건강상 사고의 우연성과 필연성으로 포장하여 미국 백인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흑인 혐오와 차별을 은폐하고 왜곡시켰다. 비슷하게 뉴욕 순찰 경찰관 노조 위원장인 패트릭 린치는 “뉴욕 경찰서가 방향성이 없고 꼭 막혀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도부는 배를 버리고 저희 경찰관들은 길거리에 홀로 남겨 놓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무고한 흑인 시민의 목숨이 백인 경찰관에 의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잃게 되었던 충격적인 사건 앞에 미국의 백인 지도부는 가너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닌 되려 백인 경찰이 피해자 인양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¹⁾

이 사건은 얼마나 미국 사회가 흑인을 혐오하며, 대부분 흑인을 범죄자(가해자)로 치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카를린 엠케는 그녀의 책 『혐오사회』에서 가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초크는 경찰의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흑인에게 가해지는 초크에는 오랜 전통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 전통은 미국 사회와 미국 정부가 흑인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경멸하고 학대했던 유산과 전통이다.²⁾

혐오는 명백한 사회 구조, 문화, 전통, 풍습, 시민의식의 산물이자 표출이다. 혐오는 혐오 대상에 대한 인식과 감정, 느낌, 생각 등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혐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앞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가 이미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의 구조에 뿌리박혀 있어 혐오를 표현하는 주체자가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더욱이 이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와 옹호를 받으며 혐오 대상에 대한 비난, 멸시, 축출, 배제, 절멸을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BS가 뉴스와 기사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머그, 다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Rvp525PkKS8> 2022년 7월 25일 접속.

2) Carolin Emcke, *Wie wir begehren*, 정지인 역, 『혐오사회』 (파주: 다산지식하우스, 2017), 113.

의도하기도 한다. 근본적인 혐오의 문제는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혐오의 문화를 조장하고 지지, 고수하는 사회의 구조와 전통, 문화와의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적 혐오는 문화 인류학, 정치, 사회, 역사, 경제 등 너무나 많은 연구 범위와 다양한 방법론을 연계하여 진중하게 연구가 되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룰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혐오가 일차적으로 혐오 발언을 통하여 표현됨을 직시하고 혐오와 혐오 발언에 대하여 언어의 수행성을 통하여 기독교 윤리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언어의 수행성은 언어행위이론의 방법론이 되는 언어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러한 언어행위이론(언어의 수행성)을 통한 혐오 발언과 법, 정치, 사회 등의 연구는 세계적인 학자인 주디스 버틀러, 캐서린 캘버, 레이 랭턴³⁾ 등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독교 윤리적인 고찰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는 듯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언어의 수행성을 통하여 혐오 발언을 탐구하고 기독교 윤리적 제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혐오: 감정인가? 행위인가?

사회적 혐오⁴⁾, 혐오 발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법학자, 철학

3) Judith Butler, "Sovereign Performatives" in *America: A New Sense of the Political*, Edited by Anselm Haverkamp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Katharine Gelber, *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 (Amsterdam/Philadelphia: Jog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2); "Speaking Back: The Likely Fate of Hate Speech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in *Speech and Harm: Controversies over Free Speech*, Edited by Ishani Maitr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e Langt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293-330; "Beyond Belief: Pragmatics in Hate Speech and Pornography" in *Speech and Harm: Controversies over Free Speech*, Edited by Ishani Maitr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4) 혐오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다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임옥희, "혐오발언, 혐오감, 타자로서 이웃," 『도시인문학연구』 16 (2016), 79-101; 김명순, "여성 혐오를 혐오하다," 『인문사회과학연구』 18 (2017), 123-155; 홍성수, "혐오(hate)에

자, 사회학자, 언어학자, 문화학자 등이 언어행위이론을 방법론으로 하여 혐오를 이루는 사회구조와 문화, 전통을 간파하고 그에 관한 법 제정, 대응언어, 윤리적 방향성을 탐구하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논지가 되는 것은 혐오를 감정으로 볼 것인가 행위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의미에서 혐오는 분명 감정의 문제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거부감과 불편함, 불쾌감, 불안함, 더러움, 분노, 두려움을 느끼는 혐오는 감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표출되면 행위가 된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하여 혐오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혐오의 감정을 혐오대상자 혹은 타자에게 표출했을 때이다. 개인 혐오감정의 표현과 표출은 사회의 언어화 과정을 거치며 특정 대상을 비난하고 비하하며 차별하고 배제하며 축출하고 절멸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끈다. 모든 혐오감정이 혐오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타자를 향해 혐오감정이 표출될 때 (혐오 발언할 때), 감정은 행위가 된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고유한 감각의 종류라 여겨지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감정은 사회의 구조와 규범, 메커니즘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감정은 단순한 느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평가받는다. 감정은 사회의 구조와 통치 지배를 받는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은 어떠한 근거로 평가받는가? 사회는 감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감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은 (혐오) 감정의 표현 주체자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평가받는다.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윤리학자인 마사 너스바움은 그녀의 책 『혐오와 수치심』에서 스티븐 카의 사례를 들어 혐오 감정의 타당성과 적절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법학연구』 30 (2019), 191-228; 김은주, “혐오 현상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성찰,” 『기독교 교육적 성찰』 48 (2016), 321-348; 김혜령, “성 소수자 혐오의 혐오성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의 비판적 논증,” 『신학사상』 190 (2020), 273-317.

에 대하여 설명한다. 스티븐 카는 야영지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 명의 레즈비언을 보고 그들에게 총을 쏘서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는 동성애 행위에 혐오감을 느껴 충동적으로 살인했으며, 강한 혐오 반응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이니 자신의 혐오감정을 인정하여 재판의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스티븐 카의 혐오감정에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린다. “법은 두 사람 사이의 동성애 행위가 불법적 살해를 ... 살인에서 충동적 과실치사로 줄여 주기에 충분한 법률적 도발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단순히 그만 보고 그 자리를 피할 것이며,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⁵⁾

감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이 평가받는다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의 평가는 감정 표현 주체자의 행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체자의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 규범, 그 사회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평가에 있다. 정당방위 또는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살인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의 규범 가치가 감정 판단에 포함된다. 즉 감정은 사회의 규범(가치)을 반영하기에 평가받는다. 엄격히 말해 ‘감정 표현의 행위’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혐오감정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감정의 문제가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행위의 문제가 아닌 인식의 문제로 간주 되었다. 이는 감정이 가치평가를 포함한다는 스토아학파의 전통에 기인한 것이다.⁶⁾ 따라서 오랜 시간 인류학에서 감정은 가치평가의 사회적 구성물, 산물로 보았다. 감정은 특정 대상에 대한 주체자의 해석이며, 해석되기까

5) Martha Nussbaum,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2015), 243.

6) Martha Nussbaum,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 누스바움의 감정철학 3부작』 (서울: 새물결, 2015), 62.

지 사회의 신념, 문화, 전통, 구조, 풍습 등의 영향을 받는다. 즉 감정은 어떤 것에 관한 판단, 인식이며 그 판단에는 가치평가가 포함되는데 이는 사회의 모든 요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감정이 가치평가를 포함한다는 것은 감정이 행위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 사회의 가치와 가치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을 일차적인 인식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감정이 수반하는 행위의 문제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 감정의 인식과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이는 감정의 문제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하여 실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극복하거나 방안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III. 혐오의 인식적 메커니즘과 행위: 사회를 유지하는 혐오

앞에서 우리는 혐오는 근본적으로 감정의 문제가 아닌 행위의 문제이며 혐오는 사회의 가치(평가)를 포함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산물임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혐오 인식의 기제는 사회의 메커니즘과 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함께 있다. 이는 혐오의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간에 혐오는 사회를 구성하며 그 사회를 지탱하며 유지하는 기능이 있음을 함축한다. 혐오가 법의 제정과 집행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앞의 스티븐 카의 사례에서는 카의 동성애 혐오로 인한 살인이 죄를 경감시켜 주지 않았지만 때때로 동성애자에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동성애 혐오' 반응을 인정하여 죄를 경감시켜 주기도 한다.⁷⁾ 즉 혐오는 우리 사회를 평가하며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기준이자 원리, 규범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혐오는 단순한 감정이

7) 앞의 책, 118.

아니며 굉장히 유기적이며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한다. 이는 혐오가 일종의 법적 절차가 되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혐오가 ‘사회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도덕적 문제를 평가하고 가치를 구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발달, 지적, 틱 등)의 예상치 못한 행동은 종종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들이 사회구조를 파괴하거나 위협을 초래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⁸⁾ 일반적으로 혐오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관습과 전통, 구조의 논리에는 혐오 대상자(예: 흑인, 타민족, 동성애자 등)가 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고 해를 입힐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과 예견이 전제되어 있다. 레온 카스는 혐오가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는 감정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즉 “어떤 것을 떠올렸을 때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우리가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을 위반했음을 논증 없이 바로 직관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

그렇다면 혐오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발현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혐오 속에 담긴 관념적 사고에서 기인하는데 바로 오염, 전염에 대한 사고이다. 누군가가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혐오감(혐오 발언)을 표출한다면 그것은 특정 대상이 사회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그것에 대한 해악이 사회 공동체에 퍼지는 것(전염)을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밀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은 인간을 서열화하고 특정 계층을 오염되어 있는 혐오 집단으로 판정하여 그들을 저열하고 천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밀러는 사람을 계층화하는 것을 혐오 기저의 속성이라 보았다.¹⁰⁾

8)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적 담론에서 장애인 혐오를 주장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9) Martha Nussbaum,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153.

혐오의 인식적 내용은 역겨운 대상의 오염물의 체내화 가능성에 대한 불쾌감이다.¹¹⁾ 이때 혐오는 ‘오염물’과 ‘부적절’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이, 모래를 먹기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지만, 그것이 혐오를 유발하지는 않는다.¹²⁾ 즉 혐오감의 인식적 내용의 핵심은 ‘오염’이다. 혐오는 특정 대상이 자신이나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나(공동체)를 더럽히고, 그 오염물을 전염시킨다는 인식이자 관념이며 혐오대상자가 나의(공동체) 공간 또는 영역에 들어왔을 때 나(공동체) 자신도 오염되고 만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혐오는 공간, 영역의 문제인 ‘경계’와 관련된다. 혐오는 혐오대상자가 나의 경계를 침투하거나 침범할 경우 내가 오염될 수 있다고 느낀다. 대부분 사람은 방광에 소변이 차 있을 때는 소변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지 않지만, 자신의 몸에 자신의 소변이 묻거나 소변을 마시게 되면 혐오감을 느끼는 것처럼 혐오에 있어서 ‘경계 안’과 ‘경계 밖’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혐오는 대개 비판적이거나 이성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직관적으로 사회에 투사되어 사회의 전통과 관습, 체제, 규범, 문화를 만든다. 심리학자 로진에 따르면 사회에 투사되고 반영되는 혐오는 ‘전염의 법칙’과 ‘유사성의 법칙’을 통해 실현된다.¹³⁾ 전염의 법칙은 과거에 접촉했던 사물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입었던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하고 살균 소독한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사람들은 그 옷을 입기를 꺼린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사

10) William I. Miller, *The Anatomy of Disgu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9.

11) Martha Nussbaum,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2015), 166.

12) 위의 책, 167.

13) Paul Rozin “Disgust: The Body and Soul Emotion” in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Edited by Dalgleish (Chichester, UK: John Wiley and Sons, 1999), 435.

성의 원칙은 오염을 일으키는 대상의 외형 및 이미지가 서로 비슷하면 다른 대상도 오염되었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초콜릿이라도 그 모양이 바퀴벌레라면 먹기를 꺼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는 이성적이며 사회 비판적인 방식보다 직관적인 방식을 통하여 형성되며 사회 관습과 문화, 구조를 만들며 실재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회를 유지하는 혐오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도덕적 문제와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혐오가 과연 윤리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또한, 직관적인 방식으로 형성되는 혐오에 있어서 누가 혐오의 기준을 세우며 혐오 집단을 명시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혐오의 기저에는 사람을 서열화하여 계층을 나누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우열과 열성을 나누어 비교적 힘이 없고 나약한 특정 집단을 혐오군으로 분리, 범주화하는 사회적 혐오가 투사되어 있다. 이러한 혐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2년 3월 인도 구자라트에서 힌두교도들이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데 사용되었다. 민족적 순수성을 주창하며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순수함과 오염이라는 대조적 인식을 통해 이슬람교도들이 자기 민족을 더럽히는 오염의 외부자라는 틀을 씌웠다.¹⁴⁾ 특정 대상으로부터의 오염을 막고 순수성(또는 안전, 사회 유지)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는 혐오는 때로는 특정 대상을 차별, 불평등, 배제, 축출, 절멸을 위해 또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혐오를 투사하는 사회구조와 메커니즘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혐오가 사회적으로 실효가 되는 혐오 발언,

14) Martha Nussbaum, "Genocide in Gujar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ooks Away," *Dissent*(2003), 61-69.

즉 혐오 언어의 기제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IV. 사회적 혐오투사: 혐오 언어의 기제와 언어의 수행성

혐오는 언어를 통해 실효되고 실재(사회화)가 된다. 언어는 행위로서 실재가 된다. 따라서 혐오 발언은 말해질 때 특정 대상에게 즉각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간주하며 듣는이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¹⁵⁾ 혐오 언어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혐오 언어가 발화되는 사회적 맥락과 관습에 의해 그 말이 주는 의미와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¹⁶⁾ 직관적인 감정 혹은 느낌으로 머물렀던 거리낌, 거부감이 언어로 발화되면 혐오는 실재의 옷을 입고 사회구조와 관습, 문화와 전통, 규범과 가치를 만든다. 따라서 혐오는 한 사회의 혹은 개인의 인지적 감정과 사회적 기능이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명시적인 언어 차별의 용어를 만든다. 즉 혐오의 기저에는 사회적 관념이 투사되어 있고 혐오 발언의 기제에는 사회-언어의 구조적 이데올로기, 매커니즘, 고정관념 등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적 혐오는 특정 대상과 경계선을 긋고 특정 대상의 오염(혐오)으로부터 자신의 순수성 혹은 우월성을 지키려는 관념이다. 즉 혐오는 동질 집단의 경계선의 ‘안’과 ‘밖’에서 사회의 관습과 규범의 ‘사회-언어적’ 구조를 만든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혐오대상자는 비체(object)이다.¹⁷⁾ 비체는 일종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못한 것으로 주체의 경계를 위협하는 모든 타자이다. 비체는 사회적 의미에서 동일성을 벗어나며 그러기에 사회의 체계 구조 및 질서를 어지럽힌다

15)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16.

16) Lisa Schwartzman, "Hate Speech, Illocution, and Social Context: A Critique of Judith Butler,"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3.3 (2002): 433.

17) Julia Kristeva, *Poivoirs de l'horreur*,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서울: 동문선, 2001), 25.

고 여겨진다. 따라서 혐오대상자인 비체는 동일성을 가지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혐오를 받는다. 이러한 혐오는 사회적으로 투사되며 혐오 언어로서 수행되고 실재가 된다. 그것의 첫 단계는 경계선을 짓는 것, 특정 대상을 분리하여 범주화시키는 것이다.

그라우만과 빈터만텔은 혐오 발언의 사회-언어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¹⁸⁾

단계	사회적 기능	인지-감정 과정	언어적 표현	명시적인 언어 차별의 예
1	분리하기	구별하기 범주화하기	차등이름 지정 의미론적 분류	우리/ 그들
2	거리두기	이원화하기 다름에 초점 두기	비인격적인 수동구조 추상명사 사용 사물화	우리/그 사람들
3	강조하기	과장된 차이 양극화하기	강조하는 언어 대조하기	세계 유태인 음모
4	경멸하기/ 저하하기	범주적 부정적인 평가 사회 범주에 대한 정서적 반응 편견	모욕적인 언어 경멸적인 언어 희롱하는 언어 의심스러운 언어	Nigger 검둥이 Wop 윙 (남부 유럽, 특히 이탈리아인을 가리키는 매우 모욕적인 말)
5	고정하기/ 특성화하기	고정관념화하기 부정적인 특성의 범주적 속성	라벨(꼬리표) 붙이기 형용사에 의한 일반적인 분류	게으른 변덕스러운
6	명명화하기 (호칭 부르기)	유형 또는 일반으로 분류	명사에 의한 일반적인 분류	fag 남자 동성애자 dyke 여자 동성애자 Pinko 공산주의자 (빨갱이)

18) 필자는 그라우만과 빈터만텔의 사회-언어적 구조를 재정리, 약간 수정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Carl Graumann and Margret Wintermantel, "Discriminatory Speech acts. A Functional Approach," in *Stereotyping and Prejudice. Changing Conceptions* (New York: Springer, 1989), 194.

위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혐오 언어의 사회-언어적 구조에는 사회적 기능과 인지-감정 과정, 언어적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 1단계는 분리하기다. 우리와 그들,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여 범주화하는데 이때 언어는 차등의 이름이 지정되며 의미론(사회적 의미)적으로 분류된다. 1단계의 핵심 메커니즘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관념이며 경계선 긋기, 분리가 시작된다. 분리와 구별, 범주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자국민과 외국인, 서양과 동양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분리의 메커니즘 속에 담긴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다. 근대적 의미에서 타자는 동일성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언어였고, 여기서 동일성이란 보편의 의미와 함께 백인, 중산층, 남성성에 대한 우월감 혹은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이었다. 따라서 흑인, 동양인, 빈민층, 여성 등은 동일 범주에 속하지 않은 타자들로 구별되었으며 사회의 구조와 제도, 문화와 관습,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 혐오 발언과 혐오 논쟁은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 평등을 주장하며 동일 범주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시작된다. 내집단과 외집단,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고 구분할 때 동일 범주에 대한 거리낌, 혐오감은 혐오 발언(언어)으로 표출되고 이때부터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 축출과 절멸이 시작된다.

2단계는 동일 범주와 타자의 경계를 구분 짓는 ‘다름’에 초점을 둠으로써 혐오 대상에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의식과 행동으로 혐오를 표현하고 시행하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다름에 대한 이원화를 구체화 시키며 비인격적인 언어가 사용된다. 혐오 대상에 대한 지칭은 추상명사를 사용하거나 사물화시킨다. 3단계는 강조하기다. 다름과 차이를 과장하고 강조해서 양극화하는데 언어의 특성상 언어가 강조

되면 하나의 사회적 관념, 규범과 가치가 만들어진다.¹⁹⁾ 언어가 강조되다
는 것은 언어가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언어는 힘을 획득한다. 이렇게 언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인용되고,
재생산되고 확산함으로써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수행되고
실효된다. 예를 들어 “세계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말이 반
복적으로 사용된다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인식하
거나 믿게 된다. 즉 언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의 힘, 수행성이
실행되어 하나의 관념을 만들게 된다. 4단계(4.5)부터는 본격적으로 혐오
언어가 사회적 의미의 옷을 입고 수행된다. 이는 타자를 경멸하거나 비하
하며, 그것을 특성화하며 고정화한다. 이러한 언어는 타자에 대한 부정적
인 평가와 혐오감이 정서적으로 표출되며 타자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이
고정관념화된다. 대개 이러한 언어는 게으른, 변덕스러움과 같이 타자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으로서 형용사적인 이름으로 모욕적이며 희롱하는 언
어로서 꼬리표가 붙는다. 이렇게 언어를 통해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게 되
면 사회 공동체의 규범 및 가치가 설정되고, 이를 통해 다름에 대한 차별
과 불평등이 지지가 되고 실행된다. 마지막으로 명명화하기이다. 혐오대
상자에 대하여 명명화, 호칭 부르기가 되면 혐오 발언에 대한 비판 없이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전의 단계에서 혐오 언어가 형용사에 의
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였다면 명명화하기는 고유 명사가 된다. 이
렇게 되면 혐오 언어는 사회의 체계로서 자리 잡는다. 혐오 언어가 가진
내용과 의미가 실제로 수행된다.

언어가 사회적 관습과 문화, 체계와 규범, 규칙을 가지고 언어의 내용
과 의미를 수행하는 것을 언어의 수행성이라 한다. 언어의 수행성은 언어

19)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ntledge, 1997), 27.

를 행위로 만든다. 언어행위이론에서는 언어의 수행성을 단순발화행위, 의미수반발화행위, 효과수반발화행위의 3가지 층위로 구분한다. 단순발화행위는 언어의 명제적 내용이며, 의미수반발화행위는 언어의 실제 의미로서 언어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행위가 수행된다. 즉 의미수반발화행위는 언어가 곧 행위임을 나타낸다. 효과수반발화행위는 의미수반발화행위에 대한 청자의 반응이다.²⁰⁾ 의미수반발화행위는 언어의 내용과 의미, 행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의 관습으로부터 힘을 얻는다.²¹⁾ 이러한 의미수반발화행위는 관습적이기에 인용적이며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사회의 구조와 규범, 체계를 만들며 확립한다. 이는 언어의 힘은 관습의 인용(citation of convention)에서 나오며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사용될 때 언어가 지닌 영향력과 힘은 축적됨을 보여준다.²²⁾ 로이드는 혐오 발언의 힘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반복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혐오 발언의 힘은 언어의 인용 가능성에 있다고 보았다.²³⁾ 따라서 혐오 발언은 혐오대상자를 명명화함으로써 대상을 지칭화하고 호칭을 반복적으로 부를 때에 혐오 발언의 힘은 커지며 사회적 관습이 적용되고 실행된다.²⁴⁾ 혐오 언어가 일종의 행위로 그것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내용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혐오 언어의 대응언어로서 효과수반발화행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 John L. Austine,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94-107.

21) Moya Lloyd, *Judith Butler: From Norms to Politics* (Malden, MA: Polity Press, 2007), 112-119.

22)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51.

23) Moya Lloyd, *Judith Butler: From Norms to Politics* (Malden, MA: Polity Press, 2007), 113.

24) 위의 책, 112.

V. 혐오 발언의 기독교 윤리적 제언: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로서 효과수반발화행위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혐오와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²⁵⁾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언어의 수행성을 통하여 고찰해 보는 것이다. 본 논의의 전제인 “말이 행위다”가 옳다면,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맘충”이나 “검둥이”와 같이 특정 대상을 지칭하여 호칭을 부르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며 아울러 이를 조장하고 지지하는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와 메커니즘, 관습과 전통, 문화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혐오 발언에 대하여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 윤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탐구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혐오 발언은 특정 대상을 명명화하고 호칭을 부를 때 본격적으로 실효되며 사회적 배제와 차별, 불평등과 축출, 절멸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방법은 호칭을 무위화 시키거나 호칭에 재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이유는 호칭에는 사회적 편견과 분리된 범주, 고정관념이 투사되어 있으므로 호칭을 무위화 시키거나 재의미를 부여할 때 혐오 세계의 기저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또한, 혐오 발언의 시작점이 되는 동일 집단, 동일 범주의 구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25) 여기서 대응과 대응언어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언어행위이론의 관점에서 언어는 곧 행위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대응과 말을 표현하는 언어가 본 논문 안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임을 밝힌다 (언어=행위). 또한, 대응언어는 화자의 의미수반 발화행위에 대한 청자의 반응인 효과수반발화행위에 해당하므로 counter-speech, speaking back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에 본 논문에서는 문장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 대응언어와 효과수반발화행위를 동일어로 적절하게 사용하겠다. 때론 기독교성을 위해 효과수반발화행위 용어를 쓰는 것을 자제하고 괄호로 표시하겠다.

먼저 동일 집단, 동일 범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자. 유대 사회에서 정결법은 기본적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그렇지 않은 ‘이방인’인 ‘그들’을 분리하여 범주화하는 종교법이자 사회법(도덕법)이었다. 정결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거룩한 삶’ 쉽게 말해 깨끗한 삶을 일상생활에서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오염’과 ‘위험’의 요인의 근절과 차단이 필수였고, 유대 사회는 오염과 위험을 초래하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하여 축출했다. 병자, 유출병 환자, 장애인, 창녀, 세리, 사마리아인 등은 부정한자로 분리되어 정결법을 따르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동일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밖으로 축출되어 따로 살아야 했다. 레위기 15장의 정결법,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보면, 유출병자는 부정하며, 그가 누웠던 곳, 다녀간 곳, 접촉한 자 등이 모두 부정해진다. 부정한자로 구분된 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부정한 행위, 즉 죄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의 유입을 막고 부정의 전염을 막아 오염과 위험의 요소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여 정결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 정결법의 핵심이다. 이러한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관념은 동일 범주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분리하고 속하지 않은 자를 오염의 요인과 전과자로 지목하여 사회의 혐오와 배제, 축출, 절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정결법을 역행했다 (막5:25-43).²⁶⁾ 정결법에서 부정한

26) 혐오 발언의 대응언어로서 효과수반발화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기독교 윤리적 제언으로서 예수의 정결법에 관하여 짧게 예로 넣은 것은 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매우 중요한 담론이지만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신학적,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고 깊은 간 학문적 연구와 통찰을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는 학문적인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예수의 정결법에 관한 통찰력이 사회의 모든 혐오 발언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없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단독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관심이 있다면 김혜령의 논문이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김혜령의 정결법과 관련하여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정한 것 역시 부정해지는데 예수는 부정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었다. 물론 예수는 모든 부정을 깨끗게 하시는 정결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언어행위에 있다. 예수는 당시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어 유대 사회의 혐오 대상이었으며 분리 대상이었던 혈루증 여인이 경계선 밖을 이탈하여 공동체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힐난하지 않으셨다. 또한,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데었다고 혐오하지 않으셨다. 대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데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린 그녀에게 예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라고 축복(약속)하셨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는 죽은 아이로의 딸의²⁷⁾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서 걸으라” 선포하셨고 아이로의 딸은 살아났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5:25-43절의 본문은 예수의 정결법 역행에 대한 상반되는 사건이 2가지가 연이어 나온다. 핵심은 유대 사회의 혐오대상자

혐오 저항 운동에 관한 통찰력은 그녀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매우 탁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녀는 예수의 정결법이 죄인으로 정죄 받아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축출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예수의 하나님 나라라 평가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는 종교법이자 생활 도덕으로서의 정결법이 정한 약자들을 돌보는 소극적 이웃 사랑에 머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약자들만을 관용하는 데에 만족하는 종교 엘리트들의 정결주의의 비합리성과 폭력성, 그리고 정치성과 전체성을 그 근본부터 해체했다. 예수 운동은 신체적 제약이나 성별, 과거의 도덕적 타락 경력, 민족의 다름, 질병이나 전염병이 더 이상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야 하는 정당한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녀는 예수의 정결법과 관련하여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 운동을 혐오 저항 운동으로 해석하는 신학적 작업이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우월감이나 또 다른 경계를 나누지 않도록 우려하면서 기독교의 죄론이 혐오 비판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세속적인 혐오 저항 운동과 기독교의 혐오 저항 운동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라 평가하는데 그녀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혜령, “성 소수자 혐오의 혐오성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의 비판적 논증,” 273-317.

27) 정결법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에 대한 ‘접촉’에 따른 예수의 언어행위이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 부정을 전과하는 자가 몰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예수에 접촉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가 부정한 시체를 접촉한 사건이다. 전자가 예수가 부정한 자에게 접촉을 당한 것이라면, 후자는 예수가 의지적으로 부정한 자를 접촉한 것이다. 혐오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분리는 그들로부터 오염과 위협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여 구분하는 것은 그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 예수가 접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혈루증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높여 건강할찌어다”라고 축복(약속)의 언어행위를 하셨다. 반대로 예수는 적극적으로 죽은 아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접촉) “소녀야 일어나서 걸으라”는 선포의 언어행위를 하셨다.

위의 예수의 언어행위를 통해 우리는 혐오와 혐오 발언의 시작점이 되는 동일 범주의 구분, 즉 동일 집단과 혐오 집단의 인식 재정립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예수는 종교법과 사회법을 뛰어넘어 인간 자체를 구분하여 범주화하지 않았다. 또한, 예수의 언어행위는 그들을 혐오하지 않았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정결법에서 부정한 자로 분리된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죄인이었고, 마땅히 사회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기에, (사회적 관습의 의미에서) 충분한 자들이었다. 이들을 혐오한다고 해서 사회는 이상할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들을 분리함으로써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정결을 유지하고 이루기를 원했다. 따라서 그들은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추방되었고 유대 사회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도, 다른 이와 ‘접촉’해서도 안 됐다. 그러나 예수의 언어행위는 정결법의 규례를 깨뜨리고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그들을 환대하고 포용한다. ‘접촉’은 분리의 경계선을 허물며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며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이웃사랑의 적극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예수의 언어행위는

유대 사회의 정결법의 혐오성과 폭력성, 정치성과 종교성에 대응하는 것이었고,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 사회적 위치, 타민족 등과 같이 ‘다름’의 이유가 공동체의 동일 범주에 속하지 않은 타자들이 더는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이자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수의 언어행위는 우리가 묵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혐오대상자로 낙인 찍힌 자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인 사랑의 언어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다 (효과수반발화행위).

앞에서 사회적 혐오, 혐오 발언의 시작점이 되는 동일 집단, 동일 범주의 구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예수의 언어 행위를 살펴본 것은 소위 사회적으로 혐오 집단으로 구분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혐오 언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언어의 수행성을 이용한 언어의 전략적 사용과 인용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혐오 언어 대응(효과수반발화행위)의 방법은 호칭을 재의미화하여 호칭이 가진 힘을 무위화 시키는 것이다. 말의 힘은 의미수반발화행위에 의해 실효된다. 의미수반발화행위는 우리가 사용하는 담화의 내용과 상황이 어떠한 사회적 문화와 관습, 전통과 규칙, 규범과 질서에 관한 것인지 언어의 사용에 관계된 모든 맥락적 이해를 포함한다.²⁸⁾ 이러한 담화 맥락들은 많은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므로 명백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즉 사회적 맥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 요소들에 변화하는 것이기에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말이 혐오 발언인지 아닌지를 규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규정하려면

28)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2-3.

언어의 사회적 맥락을 고정해 놓고 그 맥락을 지배하는 관습과 메커니즘,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회적 관습과 맥락은 변화하는 것이기에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혐오 발언의 의미수반발화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 역시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²⁹⁾ 바로 여기에 혐오 발언 대응(효과수반발화행위)의 시작인 호칭 무위화 시키기의 호칭 재의미의 가능성이 있다. 혐오 발언이 지칭하는 호칭에 재의미를 부여하여 호칭을 부르면, 그 호칭은 기존과 전혀 다른 사회적 맥락과 관습 안에서 실행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즉 기존의 혐오 발언의 현실 세계가 파괴되고 전복된다.

데리다는 말의 힘은 과거에 확립된 맥락과의 단절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³⁰⁾ 바꾸어 말하면 언어의 수행성의 힘은 과거의 언어 사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거의 사용과의 단절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즉 언어의 수행성의 힘은 그 언어를 지배하는 맥락을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맥락을 떠맡는 능력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러한 데리다의 견해는 언어의 수행성이 과거의 맥락들과의 단절을 통하여 미래의 맥락들을 여는 가능성을 통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³¹⁾ 담화행위는 일종의 제도관습(a rite of institution)으로서 그 맥락들은 완벽하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³²⁾ 따라서 담화에 대한 재의미는 (버틀러의 용어로서는 resigni-fication) 새로운 맥락의 문

29)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3.

30) Jacques Derrida, *A Derrida reader: Between the blin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9.

31)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151-2.

32) 위의 책, 147.

을 열어 놓아 지금까지 전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었던 방식으로 말하면서 새로운 정당성을 요구한다.³³⁾ 버틀러는 과거의 맥락과 단절하는 것은 모욕적인 말을 재수행하고 재의미화 함으로써 모욕적인 말의 관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언어적 권력의 사용이라 말한다.³⁴⁾ 즉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호칭의 재의미화는 언어가 가진 상처들을 재실행하지 않으면서 상처의 호칭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다.³⁵⁾ 그러면서 재의미화된 호칭을 새로운 사회의 관습의 맥락과 문화, 상황에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퀴어(queer)’라는 용어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기 위한 혐오 발언으로 사용되었다. 퀴어의 언어의 목적은 명명하는 주체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었다.³⁶⁾ 그러나 이 용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호칭의 재의미화 작용을 겪는다. 퀴어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언어가 아닌 최소한 일부 장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축하라는 새로운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벗어났다.³⁷⁾ 과거의 상처를 주도록 확립된 언어의 맥락이 단절되고 새로운 맥락의 문을 연 것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퀴어는 집단적 저항의 장소가 되었으며 재주장되었고, 개방되었다.³⁸⁾ 따라서 혐오 발언의 재의미화는 역설적으로 모욕적인 호칭에 의미를 제기하며 또 다른 맥락의 사회구조와 관습,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한다. 버틀러는 “퀴어와 같은 용어들에 대한 가치 전도는 말이 그

33) 위의 책, 41.

34) 위의 책, 13.

35) 위의 책, 40-41.

36) Moya Lloyd, *Judith Butler: From Norms to Politics* (Malden, MA: Polity Press, 2007), 121.

37) 위의 책, 121.

38)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228.

말의 발언자에게 다른 형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원래 목적과 반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효과의 반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가 “너 레즈비언이야?”라고 물었을 때 B가 “응, 나 레즈비언이야”라고 긍정적으로 말함으로써 혐오 발언의 목적인 수치와 비하는 소멸한다. B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재의미화된 채로 A에게 되돌려줬기 때문에 A의 혐오 발언은 실패된다.³⁹⁾ 이는 기존의 맥락과 단절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언어가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⁴⁰⁾ 즉 언어의 반복을 통해 혐오 발언의 반복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효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란하고 전복시키는 반복, 그 담화행위를 지지하는 관습으로부터 탈피하는 반복으로서 언어의 힘을 행사한다.⁴¹⁾ 따라서 기존 관습을 단절하는 언어행위를 통하여 혐오 발언에 대한 효과수반발화행위 즉 되받아 말하기 전략이 필요하다.

VI.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언어의 수행성을 통하여 사회적 혐오와 혐오 발언을 탐구하고 기독교 윤리적 제언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사회적 혐오는 혐오 발언을 통해 실현되고 수행되는데 이는 언어의 수행성과 연관된다. 언어의 수행성의 힘은 모든 사회적 맥락과 상황, 구조와 체제, 관습과 문화, 전통과 가치 속에서 발현된다. 따라서 혐오와 혐오 발언은 언어-사회적 구조 속에서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메커니즘을 반영한다. 이는 특정 대상에게 혐오감을 표출하여 그들을 비난, 멸시, 축출, 불평등, 배제, 절멸을

39) Moya Lloyd, *Judith Butler: From Norms to Politics* (Malden, MA: Polity Press, 2007), 121.

40) 앞의 책, 114.

41)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19-20.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혐오의 문제는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혐오의 문화를 조장하고 지지, 고수하는 사회의 구조와 전통, 체제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차원에서 혐오와 혐오 발언에 대하여 제언했다.

혐오는 사회적으로 투사되며 혐오 언어로서 수행되고 실재가 된다. 혐오감의 인식적 내용은 오염인데, 특정 대상이 자신이나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나(공동체)를 더럽히고, 그 오염물을 전염시킨다는 관념이다. 따라서 혐오는 특정 대상을 분리하여 경계선을 확고히 하고 그들을 범주화하여 그들로부터 오염과 위협의 요소를 차단하고자 한다. 우리는 예수의 정결법 역행 사건(예수의 언어행위)을 통하여 혐오와 혐오 발언의 시작점이 되는 동일 범주의 구분, 즉 동일 집단과 혐오 집단의 인식 재정립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수는 종교법과 사회법을 뛰어넘어 인간 자체를 구분하여 범주화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았고 환대하고 포용했다. 이러한 예수의 언어행위는 우리가 혐오대상자로 낙인 찍힌 자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인 사랑의 언어행위를 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언어의 수행성을 이용하여 혐오 언어 대응의 방법은 호칭을 재의미화 하여 호칭이 가진 힘을 무위화 시켜 기존의 혐오 발언의 현실 세계를 파괴하고 전복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령. “성 소수자 혐오의 혐오성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의 비판적 논증.” 『신학사상』 190 (2020), 273-317.
- Austine, John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 Butler, Judith.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 Derrida, Jacques. *A Derrida reader: Between the blin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 Emcke, Carolin. *Wie wir begehren*, 정지인 역. 『혐오사회』. 파주: 다산지식하우스, 2017.
- Graumann, Carl and Wintermantel, Margret. *Stereotyping and Prejudice: Changing Conceptions*. New York: Springer, 1989.
- Klyne R. Snodgrass. *Stories with Intent*. Michigan: Eerdmans Pub Co, 2007.
- Kristeva, Julia. *Pouvoirs de l'horreur*,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서울: 동문선, 2001.
- Lloyd, Moya. *Judith Butler: From Norms to Politics*. Malden, MA: Polity Press, 2007.
- Miller, William I. *The Anatomy of Disgu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Nussbaum, Martha C. “Genocide in Gujar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ooks Away.” *Dissent* (2003) 61-69.
- Nussbaum, Martha.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2015.
- _____.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 누스바움의 감정철학 3부작』. 서울: 새물결, 2015.
- Schwartzman, Lisa, “Hate Speech, Illocution, and Social Context: A Critique of Judith Butler”,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3-3 (2002), 421-441.

논문투고일: 2022년 10월 11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1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언어의 수행성을 통하여 사회적 혐오와 혐오 발언을 탐구하고 기독교 윤리적 제언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사회적 혐오는 혐오 발언을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언어 수행성의 실행과 결과이다. 따라서 혐오의 표현, 발언은 언어·사회적 구조 속에서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메커니즘, 관습과 문화를 반영하고 특정 혐오대상자들을 차별, 배제, 축출, 절멸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언어의 수행성, 언어행위를 통해 기독교 윤리의 차원에서 혐오와 혐오 발언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예수의 정결법 역행 사건의 언어행위를 통해 혐오 집단의 인식 재정립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수행성을 이용하여 혐오 언어 대응의 방법인 호칭 재의미화를 탐구한다.

주제어: 사회적 혐오, 혐오 발언, 언어의 수행성, 기독교 윤리, 언어행위이론
